

사회적 범주화가 인상통합양식에 미치는 효과

이해경 · 이수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는 사회적 범주화가 인상통합양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사람들이 내집단에 동일시할수록 내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조망축소가 일어나 대상의 특성 지각에 있어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지 못하는 반면에 개인으로 동일시할수록 다원준거로 대상을 판단하는 조망확대가 일어나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범주화조건과 탈범주화조건을 조작하였다. 범주화조건에서는 남녀 성범주를 특출하게 하므로서 내집단에 동일시하도록 처치한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성범주에서 남녀를 개별화하도록 처치하였다. 그런 뒤 자극인물의 성격특성들을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에서 서로 일치된 정보와 불일치된 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차원(좋다-싫다)과 서술차원(여성답다-남성답다)에서 인상을 판단하게 하였다. 실험결과에서 첫째, 자극인물의 특성이 일치된 정보의 분석에 따르면, 범주화조건에서는 자극특성의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였다. 즉, 평정차원이 평가차원과 서술차원 둘다에서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였다.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자극특성의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였다. 즉,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서술차원일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였다. 둘째, 불일치된 정보의 분석에 따르면,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에는 범주화조건이 탈범주화조건보다 자극인물의 특성이 서술적으로 불일치하고 평가적으로 일치할 경우에는 평가일치정보에 따라 인상을 더 잘 통합하였다. 반면에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일 때에는 탈범주화조건이 범주화조건보다 평가적으로 불일치하고 서술적으로 일치할 경우에는 서술일치정보에 따라 인상을 더 잘 통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사회적 대상을 내외집단으로 범주화하면 고정관념과 편견이 야기된다(Brewer, 1979; 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89; Tajfel, 1982; Tajfel & Turner, 1986; Wilder, 1986). 여기서 고정관념이란 내외집단 성원들의 특성에 대한 신념들을 말하며, 편견은 내외집단 성원들을 호의 혹은 비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Chein, 1951; Krech & Crutchfield, 1948; Oakes, Haslam & Turner, 1996; Worchel, Cooper, & Goethals, 1990).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기 능적(agentic)인 특성(예; 용감하다, 결단력 있다 등)

을, 여자들은 친화적(communal) 특성(예; 따뜻하다, 부드럽다) 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고정관념이라면, 남자는 기능적이라서 좋지만 여자는 기능적이지 않아서 싫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다. 결국 고정관념은 내외집단의 특성 차이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라면, 편견은 감정 혹은 평가적 판단인 것이다.

그동안 사회심리학 연구들에서 볼 때 고정관념과 편견을 사회적 범주화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인지와 감정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효과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많으나, 두 요소가 상호 어떻게 연

결되는지, 그 연결과정을 다루는 연구는 결여되어 있었다. 즉, “고정관념이 어떻게 편견으로 연결되는가?” “인지적 의미가 어떻게 감정적 의미로 연결되는가?”와 같은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Peabody(1967)는 말의 의미 지각에 있어서 ‘기능적이다’, ‘친화적이다’와 같이 다만 대상의 특성을 지칭 혹은 기술하는 것을 ‘서술적 의미’(descriptive meaning)로, ‘좋다’ 혹은 ‘나쁘다’의 의미로 지각하는 것을 ‘평가적 의미’(evaluative meaning)로 구분하였다. Peabody의 의하면 고정관념은 대상의 특성을 서술적 의미로 지각하는 것이라면 편견은 평가적 의미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외집단성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대상에 대한 ‘서술적 의미’로, 편견을 ‘평가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서술적 의미가 어떻게 평가적 의미로 지각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에 대한 평가적 의미지각 즉, 평가적 판단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사회 정체이론(Tajfel & Turner, 1986)은 평가적 판단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동기적 접근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평가적 판단의 원인을 자존감 고양 동기로서 설명하고 있다. 즉, 내집단은 좋고 외집단은 싫다고 하는 평가적 판단을 하게 되면 내집단에 속한 자신의 상대적 지위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 정체이론의 주장은 다각적으로 검증되어 왔다(Brown, Collins & Schmidt, 1988; Crocker & Luhtanen, 1990). 그러나 사회정체이론은 평가적 판단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른 동기적 접근들과 마찬가지로 평가적 판단의 원인은 설명할 수 있으나 그 과정(process)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이해경과 이수원, 1994; 이해경과 이수원, 1996; Abrams & Hogg, 1988).

이해경과 이수원(1994)은 사회정체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평가적 판단이 일어나는 과정을 인지적 접근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에 동일시할수록 내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치로 내외집단을 판단하므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평가적 판단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Gaertner와 동료들(1989)의 방법에 따라 사회적 범주를 강조한 범주화조건과 범주를 해체시켜 개별화한 탈범주화조건으로 조작하였다. 범주화조건은 남녀를 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간 상호 경쟁하도록 조작하였다. 이 조건은 성범주경계를 특출하게 조작하므로서 내집단에 동일시하게 한 조건이다. 이에 비해 탈범주화조건에서는 남녀를 집단으로 범주화한 후, 이후 단계에서 남녀 6명이 개인별로 경쟁하도록 하여 개인으로 동일시하게 한 조건이다. 두 조건의 처치 후, 피험자들은 토론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6명의 남녀에 대해 인상을 판단하게 하였다. 인상판단에는 기능성(6문항)과 친화성 문항(6문항)과 좋다.싫다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능성과 친화성 문항은 판단자의 판단준거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준거변별값과 친화준거변별값으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기능준거변별값이 크다는 것은 남자를 여자보다 더 기능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며, 친화준거변별값이 크다는 것은 여자를 남자보다 더 친화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과 친화준거변별값이 클수록 그 가치를 판단준거로 남녀집단성원들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다.싫다 차원의 문항은 내외집단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내집단의 편애 혹은 편파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첫째, 두 실험조건에 따라 판단자 남녀의 판단준거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화조건에서는 남자는 기능준거변별값(평균 = .57)이 크고 친화준거변별값(평균 = -.42)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는 친화준거변별값(평균 = 1.09)이 크고 기능준거변별값(평균 = -.07)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외집단성원들을 판단할 때 남자는 친화 가치보다 기능가치를, 여자는 기능가치보다 친화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집단의 가치만을 가지고 내외집단의 차이를 변별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범주화조건보다 내외집단의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자 남녀 모두 기능준거변별값과 친화준거변별값을 비슷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외집단의 가치, 두 개의 가치로 내외집단의 차이를 변별함을 의미한다.

둘째, 두 실험조건에 따라 내외집단성원들에 대한 평가적 판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주화조건이 탈범주화조건에 비해 내집단을 좋다고 판단하고 외집단을 싫다고 판단하는 편애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범주화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범주가 강조될 때 내집단 편애가 더 증가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세째, 남녀집단성원에 대한 '좋다' 혹은 '싫다'의 태도는 판단자의 판단준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집단에 대한 태도와 판단준거간의 상관관계분석에 따르면, 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가치는 남자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지만 여자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가치는 여자에 대한 태도와 정적상관이 있지만 남자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능가치를 가질수록 남자는 좋고 여자는 싫다고 판단하게 되고 친화가치를 가질수록 여자는 좋고 남자는 싫다고 판단하게 된다. 즉 범주화조건에서는 하나의 가치로 남녀집단 둘다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치의 일치 여부에 따라 좋다와 싫다의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외집단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가치는 남자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상관이 있고 여자에 대한 태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친화가치는 여자에 대한 태도와는 정적상관이 있고 남자에 대한 태도와는 상관이 없었다. 즉, 기능가치를 가질수록 남자는 좋다고 보고 여자를 싫다고 보지 않게 된다. 친화가치를 가질수록 여자는 좋다고 보고 남자를 싫다고 보지 않게 된다. 결국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기능가치는 남자에 대한 태도만을 결정하고 친화가치는 여자에 대한 태도만을 결정하므로 남자도 '좋다', 여자도 '좋다'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적 판단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해경과 이수원(1994)의 연구결과에서 범주화조건보다 탈범주화조건에서 평가적 판단이 감소하는 것은 내집단의 판단준거 뿐만 아니라 외집단의 판단준거를

동시에 고려하여 내외집단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내외집단의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내집단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범주화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망확대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조망확대가 평가적 판단의 감소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경과 이수원(1994)의 연구는 범주화조건과 탈범주화조건에서 내외집단의 인상판단을 평가차원(좋다-싫다 차원)에서 측정하고 평가차원이 아닌 차원에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지기 Peabody(1967)는 판단차원을 대상의 의미를 '좋다-싫다'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평가차원(evaluative dimension)과 비평가적 차원에서의 판단을 서술차원(descriptive dimension)으로 구분한 바 있다. 만약 조망축소가 평가적 판단을 야기한다면 조망확대가 일어났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평가적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판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탈범주화가 조망확대를 야기한다고 볼 때 조망확대가 비평가적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범주화가 내외집단성원들의 인상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차원과 서술차원, 두 차원 모두에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인상판단에서 대상을 평가차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대상의 특성을 평가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는 것인 반면에 서술차원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비평가적 의미 즉, 서술적 의미로 지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술적 의미란 개개의 성격특성들이 지칭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예컨대, '정직하다'의 서술적 의미는 '근면하다'와 비교할 때 '근면하다'와 다른 특성을 지칭하는 뜻으로 개별적 성격특성들이 갖고 있는 내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평가적 의미란 개개의 성격특성들이 함축하고 있는 '좋다' 또는 '나쁘다'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직하다'의 평가적 의미는 '정직하다'와 '정직하지 않다'를 비교할 때 나타난다. 이 두 성격특성에서 지칭하고 있는 특성의 내용은 같지만 다른 점은 전자는 좋은 특성이고 후자는 나쁜 특성이라는 것이다. 즉, '정직하다'의 평가적 의미는 '좋다-나쁘다'의 차원에서 '정직하다'가 갖는 의미이다.

만약 인상판단에서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판단하게 하였을 때 조망확대와 축소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이수원과 이지연(1996)은 인상통합양식에 있어서 조망확대집단과 무조망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시위'에 대한 태도에서 학생시위에 대해 찬성태도(정적태도)와 반대태도(부적태도)를 모두 가지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집단(정부감정공존집단)과 찬성과 반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집단(정부감정부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정부감정공존집단은 학생시위를 찬성하는 태도에서 오는 '진보가치'와 반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보수가치', 두 가치를 모두 갖는 조망확대집단이며, 후자는 '진보'와 '보수' 두 가치를 모두 갖지 않는 무조망집단이다. 이 연구에서의 가설은 조망확대집단은 무조망집단에 비해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불일치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전자에서는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평가적 의미에서 서술적 의미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인상통합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바꾸어서 지각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지되었다. 첫째, 조망확대집단은 제시한 평정차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제시된 자극특성들의 의미를 달리 지각하였다.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에는 자극 특성들의 평가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였으며, 서술차원일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였다. 반면에 무조망집단은 제시한 평정차원에 따라 의미를 달리 지각하지 못하였다. 평정차원이 서술차원과 평가차원 둘다에서 평가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였다. 둘째, 조망확대집단은 무조망집단과 달리 제시된 자극인물이 평가적 의미에서 불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는 반면에 서술적 의미에서 불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였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조망이 확대되면 주어진 특성이 갖고 있는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동시에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무조망집단과 같이 조망이 축소되면 자극 특성을 평가적 의미에서만 처리하고 서술적 의미는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수원과 신현숙(1986)은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달적으로 태도의 차원구조가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분화된 구조를 갖지 않을 경우에는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접받기 때문으로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Shepp와 Swartz(1976)의 지각차원의 분화연구에서 사용한 분류과제를 도입하여 성격특성의 의미지각 과정을 발달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Shepp와 Swartz(1976)는 사물을 지각할 때 어린 아동은 사물의 물리적 차원 예컨대, 색상차원과 형태차원을 분화해서 지각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인은 이들을 분화해서 지각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성인은 사물을 차원구조(dimensional structure)로 지각하는 반면에 아동은 유사성 구조(similarity structure)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수원과 신현숙은 이런 현상이 성격특성의 의미지각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예상대로 아동은 성격특성의 의미지각에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인은 이를 분화하여 지각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수원과 신현숙은 아동에게 일련의 성격특성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서술적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였을 때 성격특성의 평가적 의미에 의해서 간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특성들의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분화해서 지각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성인은 서술적 의미에 따라서 분류시켰을 때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아동이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섭받는 것이 태도의 차원구조에 있어서 평가차원과 서술차원이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조망확대집단에 비해 조망축소집단에서 나타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접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앞서 이수원과 이지연(1996)의 연구는 조망확대와 축소에 따른 인상통합양식의 차이를 검토한 것으로 사회적 범주화가 인상통합양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인상통합과제를 사용하여 사회적 범주화가 자극인물의 인상통합에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해경과 이수원(1994)의 연구가설과 방법에 따라 '성역할'을 주제로 남녀를 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성역할에 동일시하게 하는 조건과 성범주를 해체하여 성역할에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는 탈범주화조건으로 각각 조작하고자 하였다. 범주화조건에서는 내집단에 동일시하게 되므로서 내집단에서 추구되는 하나의 가치(기능 혹은 친화)를 판단준거로 대상을 판단하는 조망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한가지 판단준거로 자극정보를 판단하게 되면 일치되는 정보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판단차원이 평가차원일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고 판단차원이 서술차원일 때에도 평가적 의미에 따라 자극정보를 판단할 것이다. 즉,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일 때에도 서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고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섭을 일으킬 것이다.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남녀를 개별화하여 범주 경계를 해체하면 내집단에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외집단에서 추구되는 두 개의 가치(기능과 친화)로 대상을 판단하는 조망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자극정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평가차원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는 반면에 서술차원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중 심리학 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중 132명이 무선적으로 선발되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피험자들은 남녀 각각 3명씩 6명이 하나의 실험집단으로 구성된

후, 11개 팀이 범주화조건과 탈범주화조건에 각각 할당되었다. 최종분석대상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범주화조건에서는 60명, 탈범주화조건에서는 65명으로 하였다.

독립변인 조작

독립변인의 조작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성에 따른 범주화 처치를 가한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범주화와 탈범주화 처치를 가한 단계이다.

성범주화 처치

남녀 각각 3명씩 6명이 실험대기장소에 모이면,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집단의사결정기술'을 알아보려는 실험이라고 소개한 뒤, 앞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조별토론이 수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은 남녀 3명씩 2개 하위집단으로 구성되어 남녀 성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성범주화가 이루어졌다. 즉 남자는 파란색 이름표(가, 나, 다)가 적힌 이름표)중에서 여자는 주황색 이름표(A, B, C가 적힌 이름표)중에서 하나를 선택,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여 남녀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다. 하위집단으로 조편성이 끝나면 대형칸막이에 의해 공간이 나뉘어진 실험실 양편에 있는 테이블에 자신의 명찰을 찾아 앉게 하였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토론주제인 '남녀의 직업적 역할분배 문제'에 관한 두개의 상반된 입장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아래 제시된 시나리오에서 입장 1은 남녀의 직업역할의 분배에 있어서 상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남성의 주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다. 입장 2는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주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다.

(입장 1)..... 오늘날 아무리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있지만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남녀 평등이 있을 수 없다. 동물간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듯이, 인간들간에도 유전적으로 결정지워진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발달심리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기본적인 유전 구조에서부터 출생 후 키, 몸무게의 성장 비율과 속도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지적 발달과 신체적인 발달에서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 분명한 차이는 남녀간의 신체구조상의 차이이다. 남성은 여성을 대신하여 출산이나 육아를 할 수 없으며, 여성은 남성처럼 힘든 물건을 옮길 만큼 강한 근육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두뇌반구의 특성상, 여성은 대부분 좌반구형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반면에 남성은 대부분 우반구형이 많기 때문에 과묵하며 수학적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 또한 남녀는 성격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감각적이고 타인과 친화적인 반면, 남성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자기 주장적인 면이 강하다. 이런 특성들의 차이는 선천적인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 물론 후천적으로 학습이나 훈련으로 선천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순 있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남녀의 선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인 역할과 직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장 2).....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남성보다 항상 열등하고 무능력하다는 고정관념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런 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여권 신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20세기 초반 해도 여성들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까지 생각되었던 적이 있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여성들은 너무나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으며, 버스 운전사, 법률가, 의사, 회사 경영자 등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은 정계 -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 영국의 대처 수상 등 -에서 뿐만 아니라 증권 분석가, 외과의사, 트럭 운전사, 소방수, 경찰관, 우주인... 등 예전에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많은 분야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아동간의 차이는 행동수준에서의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곤, 인지적, 도덕적, 성격 특성에서의 성차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여성들은 유전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고, 저것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결국 사회적 직업이나 역할에서의 남녀의 차이를 주장한다면 스스로 바보임을 자인하는 것일 것이다.

남녀의 기질적 차이는 후천적인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 충분히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여성의 진출을 막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시나리오를 읽은 뒤, 오늘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남녀가 서로 다른 직업이나 역할을 분배받게 된 이유(신체적인 구조차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남녀의 능력차이, 여성의 주체성 부족, 사회제도상의 모순, 전통적인 인습)를 제시하고 그 이유들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순위 결정은 남녀 집단별 토론을 거쳐 조별로 합의한 순위에 따라 공동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때 기존에 갖고 있던 남녀의 집단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답안지 상단에 자신의 조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조명)을 지어 기입하도록 하였다.

범주화와 탈범주화 처치

이 단계에서는 성범주화처치에서 수행한 조별답안을 상호 토론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테이블을 옮겨 앉아야 했다. 상호 토론과제 수행에서 2개의 실험 조건으로 나누어 각각 범주화와 탈범주화처치를 가하였다. 범주화조건에서는 이전의 성범주화를 계속 강조하여 남녀 성역할에 동일시하도록 한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성범주를 해체시켜 성역할에 동일시하지 않게 조작하였다. 범주화와 탈범주화 처치는 선행연구(Gaertner 등, 1989)에 기초하여 4가지 조작이 각각 응용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처럼 집단구성원들의 상호작용시 3가지 유형의 실험조작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첫째, 처치조건별 집단구성원의 집단표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좌석배치를 상이하게 조작하였다.

둘째, 처치조건별 집단정체감을 상이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조건에서는 3명이 1개조로 편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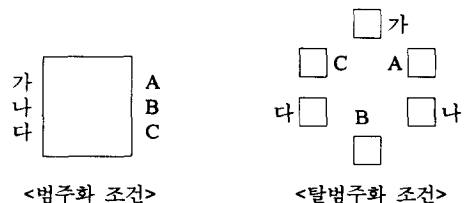


그림 1. 처치조건별 좌석배치 형태(가,나,다는 여자 구성원을, A,B,C는 남자 구성원을 나타냄)

남녀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명(조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각 피험자들에게 이전에 지었던 남녀의 집단명 대신에 개인을 대표할 수 있는 별명을 지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책을 제안하는데 있어서도 범주화조건에서는 남여집단성원들 3명이 합의한 집단별 해결책을 결정해 상대집단에게 제시하게 한 반면,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개인별 해결책을 다른 6명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세째, 처치조건별로 참여자들간의 상호의존성 정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범주화조건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3인 집단들 중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집단일수록 높은 학점카드를 받게 된다고 하여(동일한 점수의 3장) 남녀 집단내에서는 협동이, 남녀 집단간에서는 경쟁이 되도록 하였다. 반면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집단해결책이 다른 6명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일수록 A-D까지의 학점 중 가장 높은 학점카드를 개인별로 지급한다고 하여 개인별 상호 경쟁이 되도록 하였다.

실험절차

피험자들이 대형 강의실에 모이면 먼저 범주화조건과 탈범주화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된 후, 토론과제를 하는 2개의 단계를 통해 독립변인 처치를 가하였다. 독립변인 처치를 위해 소요된 시간은 총 30분 정도였다.

독립변인 처치가 끝나면 독립변인 처치 마지막 단계의 좌석배치를 유지한 상태에서(그림 1) 사후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사후질문지의 상단에는 질문지의 목적을 "실험에 참가하면서 느낀 바나 현재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 후, 토론과제에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명칭(조명) 혹은 별칭을 적게 하였다.

사후질문지의 하단에는 독립변인처치 확인문항과 인상통합양식을 묻는 문항을 제시하고 이를 완성하게 하였다. 인상통합양식을 묻기 위한 지시는 "아래에는 특정 인물의 성격특성 4가지씩을 나열하였습니다. 이 8사람의 개별특성을 잘 읽어 보신 후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해 보십시오"였다. 제시된 특정인물의 이름은 알파벳 문자로 지칭한(예; A라는 사람) 후,

그 밑에 두 개의 다른 평정차원, 즉, 평가차원(좋다-싫다)과 서술차원(여성당다-남성당다) 문항을 제시하고 인물들에 대한 인상을 각각 판단하게 하였다. 사후질문지를 완성하는데 소요된 총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였고 가능한 심사속고하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후질문지가 끝나면 독립변인처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장했던 실험절차들을 설명, 사과하였다.

실험자료

실험자료의 선정: 인상통합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8명의 인물을 제시하고 각 인물당 4가지씩의 성격특성들을 제시하였다. 실험자극으로 선정된 성격특성들은 정진경(1987)의 연구에서 남성특성과 여성특성으로 추출한 두 요인, 즉, 기능성(agency)과 친화성(communion) 가치를 대표하는 특성들로 선정하였다. 남성특성인 기능가치(A)의 정적 특성(+), 부적 특성(-)과 여성특성인 친화가치(C)의 정적 특성(+), 부적 특성(-)을 추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성역할'에 대한 서술과 평가적 의미차원 구분에 의한 성격특성

평가적 의미	서술적 의미	
	기능가치(A)	친화가치(C)
정적 (+)	야망있다	섬세하다
	능동적이다	차분하다
	독립적이다	깔끔하다
	의리가 있다	다정다감하다
	대범하다	인정이 많다
	박력있다	알뜰하다
부적 (-)	도전적이다	꼼꼼하다
	썩썩하다	순종적이다
	차갑다	수동적이다
	둔하다	의존적이다
	경쟁적이다	소심하다
	공격적이다	박력없다
	덜렁된다	의리가 없다
	지저분하다	수다스럽다
꼼꼼하지 않다	야망이 없다	
인정없다	썩썩하지 않다	

표 1에 제시된 성격특성들은 정진경의 연구에서 선정된 특성들을 이수원과 신현숙(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적 의미차원과 서술적 의미차원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실험자극의 구성: 표 1에 제시된 성격특성들을 가지고 이수원과 이지연(1996)의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자극을 구성하였다. 즉, 실험자극은 4개의 성격특성으로 구성된 8개의 자극인물이었다. 자극인물의 구성은 성격특성들의 서술값과 평가값을 서로 다르게 조합하여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에서 자극인물의 제시는 알파벳으로 자극인물(예; 인물A)의 이름을 지칭한 후, 각 인물당 4개의 성격특성을 일렬로 나열하였다. 자극인물중 제시순서에서 1번에서 4번까지는 서술값과 평가값이 모두 일치하는 자극인물(평가일치/서술일치)이며, 5번과 6번의 2가지는 평가값은 일치하지만 서술값은 불일치하는 자극인물(평가일치/서술불일치)이며, 7번과 8번의 2가지는 서술값은 일치하지만 평가값이 불일치하는 자극인물(서술일치/평가불일치)이다. 예를 들면, 자극인물이 A+A+A+A+일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의 특성을 '야망있다, 능동적이다, 독립적이다, 의리가 있다'의 4가지 성격특성을 가진 인물이다.

종속변인 측정

독립변인 처치 검증: 실험의 최종단계에서 6명의 상호작용시 피험자들이 어떤 집단표상(두집단, 개인들의 집합)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집단표상을 묻는 문항에서 각각 평정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된 지시문은 "6명이 같은 주제의 과제를 풀면서 두 집단으로 느꼈는지, 별개의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느꼈는지 그 확실하는 정도를 각각 평정하시기 바랍니다"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으로 느꼈다"문항과 "별개의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느꼈다"라는 진술 각각에 대해 피험자들이 얼마나 확실하는지를 7점 척도상(1점: 전혀 확신하지 못한다 - 7점: 매우 확신한다)에서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인상판단: 주어진 자극인물에 대한 인상통합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8명의 자극인물에 대한 인상을 각각 평정하게 하였다. 자극인물의 제시는 알파벳으로 자극인물(예; 인물A)의 이름을 지칭한 후 그 밑에 4개의 성격특성을 일렬로 나열하였다. 이 때 준 지시는 "다음은 어떤 사람의 성격특성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개별특성을 잘 읽어 보시고 이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V표해 주십시오"였다. 제시된 자극인물의 인상에 대한 평정차원은 2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자극인물에 대한 평가차원에서의 판단으로서 '싫다-좋다'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판단은 '싫다'(-4점)에서 '좋다'(4점)까지의 9점척도상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주어진 인물에 대한 서술차원에서의 판단으로 '여성답다'(-4점)에서 '남성답다'(4점)의 9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다. 평정차원의 점수는 -4점을 1점으로 하고 +4점을 9점으로 환적하여 그 평균을 변량분석하였다.

표 2. 실험자극으로 사용한 자극인물의 성격특성

제시순서	실험자극구성	자극인물의 성격특성			
1	A+A+A+A+	야망있다	능동적이다	독립적이다	의리가 있다
2	A-A-A-A-	차갑다	둔하다	경쟁적이다	공격적이다
3	C+C+C+C+	섬세하다	차분하다	깔끔하다	다정하다
4	C-C-C-C-	수동적이다	의존적이다	소심하다	박력없다
5	A+A+C+C+	대범하다	박력있다	인정이 많다	알뜰하다
6	A-A-C-C-	덜렁댄다	지저분하다	의리가 없다	수다스럽다
7	A+A+A-A-	도전적이다	씩씩하다	꼼꼼하지않다	인정없다
8	C+C+C-C-	꼼꼼하다	순종적이다	야망이 없다	씩씩하지 않다

결 과

독립변인 처치 검증

실험의 최종단계에서 피험자들이 6명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집단표상(두집단 또는 개인들의 집합)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집단과 개인에 대한 집단표상을 각각 측정하였다. 각 처치조건별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전체 구성원들이 두집단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범주화조건(평균 5.82)이 탈범주화조건(평균 4.00)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F(1, 125) = 28.43, $p < .01$]. 개인으로 표상하는 정도는 탈범주화조건(평균 = 5.49)이 범주화조건(평균=3.40)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F(1, 125) = 18.56, $p < .01$]. 따라서 본 실험에서 의도했던 대로 범주화조건에서는 탈범주화조건에 비해 남녀 대상을 두 집단으로 표상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개인으로 표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 처치가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일치정보에 대한 분석

실험에서 제시된 실험자극중에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가 모두 일치되는 특성으로 구성된 실험자

표 3. 처치조건별 구성원들의 집단표상 확신도의 평균(SD)

처치조건	집단표상	
	두집단*	개인**
범주화 (n=60)	5.82(2.24)	3.40(1.81)
탈범주화 (n=65)	4.00(2.42)	5.49(1.81)

* 점수가 클수록 두 집단으로 지각하는 것임.

** 점수가 클수록 개인으로 지각하는 것임.

표 4. 처치조건별 일치특성에 대한 평가차원 평정* 평균(SD)

처치조건	성별	자극인물의 특성			
		A+A+A+A+	A-A-A-A-	C+C+C+C+	C-C-C-C-
범주화	남(n=30)	7.70(1.66)	2.20(1.84)	7.83(1.42)	3.17(2.05)
	여(n=30)	7.66(1.68)	1.50(1.19)	7.43(1.83)	2.27(1.48)
탈범주화	남(n=31)	7.45(1.43)	2.71(1.59)	7.22(1.38)	3.87(1.85)
	여(n=34)	7.91(1.35)	1.94(1.18)	6.91(1.99)	2.50(1.64)

* 점수가 클수록 더욱 좋다고 평가하는 것임

극은 A+A+A+A+, A-A-A-A-, C+C+C+C+, C-C-C-C-의 4가지였다. 일치정보의 분석은 평정차원이 달라졌을 때 즉, 평가차원과 서술차원에 따라 인상통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실험자극에 대하여 범주화와 탈범주화조건에 따라 인상통합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범주화조건은 자극특성의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는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는 싫다-좋다의 평가차원에서의 인상평정의 평균을 처치조건에 따라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점수는 '싫다'의 -4점에서 '좋다'의 +4점까지의 원점수를 1점에서 9점으로 환적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의 평균에 대해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정적(+))과 부정(-)특성과 서술특성(기능특성(A)과 친화특성(C))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4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에 따른 주효과[F(1,121)=758.19, $p < .01$]가 유의하였다. 정적 특성(평균 7.51)을 부정특성(평균 2.51)보다 더 좋다고 평가하였다. 집단×자극인물의 평가특성의 상호작용효과[F(1,121)=4.33, $p < .05$]가 유의하였다. 자극인물의 정적(+))특성과 부정(-)특성간의 평가적 의미차이 지각은 범주화조건(정적특성 평균=7.66, 부정특성 평균=2.28, 차이평균=5.38)이 탈범주화조건(정적특성 평균=7.38, 부정특성 평균=2.73, 차이 평균=4.65)보다 더 크게 지각하였다.

또한 자극인물의 서술특성에 따른 주효과[F(1,121) = 3.77, $p < .05$]가 유의하였다. 남성적 특성(평균 4.33)보다 여성특성(평균 5.14)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서술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121) = .47, n.s.].

이 결과는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경우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판단하는 정도가 범주화조건이 탈범주화조건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판단하는 정도는 두 조건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주화조건이 탈범주화조건에 비해 더욱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에서는 '여성답다/남성답다'의 서술차원에서의 인상평정의 평균을 처치조건에 따라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점수는 '여성답다'의 -4점에서 '남성답다'의 +4점을 1점에서 9점으로 환적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5의 평균에 대해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자극인물의 정적/부적특성(+/-)과 서술특성(A/C)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4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 $[F(1,121)=7.65, p<.01]$ 가 유의하였다. 판단자 남자(평균 5.04)보다 여자(평균 5.27)가 자극인물들을 더 남성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술특성에 따른 주효과 $[F(1,121)=521.21, p<.01]$ 가 유의하였다. 여성특성(평균=3.30)보다 남성특성(평균=7.17)을 더 남성답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서술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 $[F(1,121)=521.21, p<.01]$ 가 유의하였다. 남성특성과 여성특성간의 의미차이를 판단자 남자(남성특성평균=7.24, 여성특성평균=2.84, 차이평균=4.40)가 여자(남성특성 평균=7.10, 여성특성 평균=3.44, 차이평균=3.36)보다 더 크게 지각하였다. 성별×평가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 $[F(1,121)=521.21, p<.01]$ 가 유의하였다. 정적특성과 부적특성의 의미차이 지각에 있어서 판단자 남자(정적 특성 평균=5.11, 부적특성 평균=4.97, 차이 평균=.87)

가 판단자 여자(정적특성 평균=5.15, 부적특성 평균 =5.38, 차이평균 =.23)보다 더 크게 지각하였다.

또한 집단×평가특성×서술특성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 $[F(1,121)=3.41, p<.05]$ 가 유의하였다. 평균을 살펴 보면 평가적 의미지각에서 보면 범주화조건(정적특성 평균=5.08, 부적특성 평균=5.24, 차이평균=.16)이 탈 범주화조건(정적특성 평균=5.19, 부적특성 평균=5.11, 차이평균=.08)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하는 반면에 서술적 의미지각에서 보면 탈범주화조건(남성특성평균=7.23 여성특성평균=3.08 차이평균=4.15)이 범주화조건(남성 특성 평균=7.11, 여성특성 평균=3.22, 차이평균=3.89)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일 경우에 범주화집단은 탈범주화 집단에 비해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평가하는 반면에 탈범주화집단은 범주화집단에 비해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일 경우에는 범주화조건에 비해 탈범주화조건이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불일치정보에 대한 분석

실험에서 제시된 자극인물중에서 평가적 의미 또는 서술적 의미의 어느 한쪽에서 불일치하는 특성으로 구성된 자극인물은 A+A+C+C-, A-A-C-C-, A+A+A-A-, C+C+C-C-의 4가지였다. 이들중 A+A+C+C-, A-A-C-C-의 자극인물들은 평가적으로 +(정적)나 -(부적) 특성에서 일치하나 서술적으로는 A(기능)와 C(친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적으로 불일치된 자극 인물이다(평가일치/서술불일치). A+A+A-A-, C+C+C-C-의 자극인물들은 서술적으로 A(기능)와 C(친화) 특성

표 5. 처치조건별 일치특성에 대한 서술차원 평정* 평균(SD)

처치조건	성 별	자극인물의 특성			
		A+A+A+A+	A-A-A-A-	C+C+C+C+	C-C-C-C-
범 주 화	남(n=30)	8.00(.97)	6.61(1.68)	2.29(1.13)	3.32(1.35)
	여(n=30)	6.97(1.55)	6.88(1.57)	3.05(1.94)	4.14(1.62)
탈범주화	남(n=31)	7.88(1.61)	6.46(2.15)	2.26(1.28)	3.50((1.46)
	여(n=34)	7.76(1.48)	6.80(2.09)	2.87(2.08)	3.70(1.45)

* 점수가 클수록 더욱 남성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임

에서 일치하나 평가적으로는 +(정적)와 -(부적)특성에 서는 불일치한 자극인물이다(서술일치/평가불일치).

이들 불일치정보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극인물의 특성이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가 일치된 정보와 불일치 정보가 공존할 때 어떤 정보에 따라 인상을 판단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자극인물에 대하여 범주화와 탈범주화조건에 따라 인상통합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은 범주화조건에서는 제시된 자극특성들이 평가적 의미에서 일치하고 서술적 의미에 불일치할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는 반면에 탈맥락화조건에서는 서술적 의미에서 일치하고 평가적 의미에서 불일치할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은 불일치 특성을 가진 자극인물에 대하여 싫다(-4점)-좋다(+4점)의 평가차원에서 평정한 인상평가의 평균을 1점에서 9점으로 환적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에서 처치조건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조건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자극인물특성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3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F(1,121) = 3.84, $p < .05$]가 유의하였다. 범주화집단(평균 = 5.93)이 탈범주화집단(평균 = 5.02)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자극인물에 대한 주효과[F(1,121) = 858.47, $p < .01$]가 유의하였다. 정적특성을 가진 인물(평균 = 7.59)을 부적 특성을 가진 인물(평균 = 2.11)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집단×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효과[F(1,121) = 6.17, $p < .01$]가 유의하였다. 정적특성과 부적특성간의 평가

적 의미지각에서 범주화집단(정적특성평균 = 7.98, 부적특성평균 = 2.05, 차이평균 = 5.93)이 탈범주화집단(정적특성 평균 = 7.20, 부적특성 평균 = 2.18, 차이평균 = 5.02)보다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극인물특성이 서술적으로 불일치하고 평가적으로 일치될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판단하는 경향이 범주화집단이 탈범주화집단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서술일치/평가불일치 자극인물에 대한 3원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주효과[F(1,121)=24.51, $p < .01$]가 유의하였다. 판단자 남자(평균=3.94)는 판단자 여자(평균=2.74)에 비해 자극인물을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자극인물에 대한 주효과 [F(1,121)=19.94, $p < .01$]가 유의하였다. 여성특성(C+C-C- 평균=3.75)을 남성특성(A+A-A- 평균=2.84)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성별×자극인물의 상호작용효과[F(1,121) = 17.45, $p < .01$]가 유의하였다. 판단자 남자는 남성특성(평균=3.03)을 여성특성(평균=2.65)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였고 판단자 여자는 남성특성(평균=4.85)을 여성특성(평균=2.72)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단×자극인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121)=.35, n.s].

표 6의 결과를 정리하면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경우에는 서술적으로 불일치하고 평가적으로 일치된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판단하는 정도가 범주화조건이 탈범주화조건에 비해 더 커지나, 반면에 평가적으로 불일치하고 서술적으로 일치된 인물에 대해서는 인상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처치조건별 불일치 특성에 대한 평가차원 평정* 평균(SD)

		자극인물의 특징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서술일치/평가불일치	
처치조건	성 별	A+A+C+C+	A-A-C-C-	A+A+A-A-	C+C+C-C-
범 주 화	남(n=30)	7.83(1.11)	2.10(1.60)	2.83(1.66)	4.93(2.21)
	여(n=30)	8.13(.97)	2.00(1.29)	2.66(1.67)	2.70(1.80)
탈범주화	남(n=31)	7.50(1.27)	2.42(1.23)	3.33(1.50)	4.75(2.27)
	여(n=34)	6.96(1.99)	1.81(1.13)	2.52(1.72)	2.70(1.76)

* 점수가 클수록 더욱 좋다고 평가하는 것임

표 6. 처치조건별 불일치 특성에 대한 서술차원 평정* 평균(SD)

처치조건	성 별	자극인물의 특징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서술일치/평가불일치	
		A+A+C+C+	A-A-C-C-	A+A-A-A-	C+C-C-C-
범 주 화	남(n=30)	*6.63(1.79)	5.20(1.50)	7.27(1.18)	3.21(1.06)
	여(n=30)	4.47(2.40)	6.40(1.49)	6.66(1.42)	3.33(1.32)
탈범주화	남(n=31)	6.42(1.96)	5.00(1.64)	7.78(1.46)	3.00(1.29)
	여(n=34)	4.78(2.07)	5.52(1.40)	6.44(2.07)	3.01(1.60)

* 점수가 클수록 더욱 남성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임

표 7은 불일치 특성을 가진 자극인물에 대해 평정 차원이 서술차원(여성답다-남성답다)일 경우의 인상 판단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표 7에 제시된 평균은 여성답다의 -4점에서 남성답다의 +4점을 1점에서 9점으로 환적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에 대한 집단과 성별을 집단간 변인으로 하고, 자극인물특성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3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자극인물의 상호작용효과[F(1,121)=42.60, $p<.01$]가 유의하였다. 판단자 남자는 정적특성(평균=6.51)을 부적특성(평균=4.99)보다 더 남성답다고 판단한 반면에 판단자 여자는 정적특성(평균 = 4.67)보다 부적특성(평균=5.97)을 더 남성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집단×자극인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121)=2.75, n.s].

서술일치/평가불일치 자극인물에 대한 인상판단에서 자극인물에 대한 주효과[F(1,121)=342.91, $p<.01$]가 유의하였다. 남성특성(평균=6.86)을 여성특성(평균 =3.12)보다 더 남성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집단×자극인물의 상호작용효과가 5%수준내에서 유의하진 않았으나 경향이 있었다[F(1,121)=3.26, $p<.06$]. 남성 특성과 여성특성간의 서술적 의미에 따른 인상판단에서 차이가 범주화집단(남성특성 평균=6.75, 여성특성 평균=3.40, 차이평균=3.35)보다 탈범주화집단(남성특성 평균=6.97, 여성특성 평균=2.84, 차이평균=4.13)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의 결과를 정리하면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여성답다-남성답다)일 경우에는 서술적으로 일치하고 평가적으로 불일치된 인물에 대해서는 서술적 의미차이

에 따라 인상을 판단하는 정도가 탈범주화집단이 범주화집단에 비해 더 증가하였다. 반면에 서술적으로 불일치하고 평가적으로 일치된 인물에 대해서는 인상 판단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에 제시된 불일치자극인물에 대한 평가차원과 서술차원에서의 평정결과를 종합해 볼 때 범주화집단은 제시된 자극인물이 평가적 의미에서 일치하고 서술적 의미에서 불일치할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인상을 통합하는 반면에 평가적으로 불일치하고 서술적으로 일치할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서 인상을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탈범주화집단에서는 서술적으로 일치되고 평가적으로 불일치할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인상을 통합하며, 평가적으로 일치되고 서술적으로 불일치될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범주화가 인상통합에서 성격 특성의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 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인물의 특성이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가 일치된 정보의 분석에 따르면, 범주화조건에서는 판단차원이 평가차원일 때에는 자극정보를 평가적 의미에 따라 통합하고, 판단차원이 서술차원일 때에도 서술적 의미가 아니라 단지 평가적 의미에 따라 통합하였다.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경우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고 서술차원일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였다. 둘째, 불일치된 정보의 분석에 따르면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에는 범주화조건이 탈범주화조건보다 자극인물의 특성이 평가적으로 일치하고 서술적으로 불일치하면 평가일치정보에 따라 인상을 더 잘 통합하였다. 반면에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일 때에는 탈범주화조건이 범주화조건보다 서술적으로 일치하고 평가적으로 불일치하면 서술일치정보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였다. 따라서 일치정보와 불일치정보의 분석결과에서 볼 때 범주화조건은 인상통합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반면에 탈범주화조건에서는 분화하여 지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전통적으로 집단간 태도연구에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범주화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측면 즉, 인지와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효과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많았다. 그러나 고정관념(인지)과 편견(감정)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의미가 어떻게 감정적 의미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상 판단에서 인지적 의미지각을 서술적 판단으로, 감정적 의미지각을 평가적 판단으로 각각 정의하고 서술적 의미가 어떻게 평가적 의미로 지각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주화조건에서는 자극정보의 서술적 의미를 평가적 의미에 따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차원에서 인상을 통합하게 할 경우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통합하지만 서술차원에서 판단하게 할 경우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통합하지 못하고 단지 평가적 의미에 따라서만 통합하였다. 왜 범주화조건에서는 서술적 의미를 평가적 의미로 지각하게 되는가? 범주화 조건에서는 판단자의 조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이해경과 이수원, 1994).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성역할'주제와 범주화조건과 탈범주화조건의 처리방법은 이해경과 이수원(1994)연구와 동일한 것이었다. 즉, 범주화조건은 남녀집단을 상호 경쟁하도록 하여 남녀의 집단범주 경계가 특출하게

지각되도록 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개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남자 혹은 여자의 성역할로 규정하게 된다. 즉, 사회적 정체(social identity)의 동일시가 일어난다(Tajfel & Turner, 1986). 남녀 성이 개인의 정체가 되는 상태에서는 내집단(성범주)의 가치(기능 혹은 친화)가 개인의 판단준거가 되는 조망축소가 일어난다. 따라서 대상을 한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판단기준의 일치와 불일치 여부에 따라 일치된 특성은 좋고 불일치된 특성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 즉, 대상의 의미를 좋다/싫다 차원에서 판단하므로 평가적 판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조망이 축소된 상태에서는 대상이 갖는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로 지각되는 것이다.

범주화조건과 달리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서도 인상을 통합할 수 있었다. 즉,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경우에는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하는 반면에 서술차원일 경우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할 수 있었다. 왜 탈범주화조건에서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통합할 수 있게 되는가? 이 연구의 가설은 탈범주화조건에서는 범주화조건에 비해 조망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았다. 탈범주화조건은 성범주경계를 해체하고 개인간 상호 경쟁하도록 처리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내집단 즉, 남자 혹은 여자집단으로 동일시하기 보다는 개인적 정체(personal identity)로 동일시하게 된다. 개인적 정체에 동일시하게 되면 내집단(성범주)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준거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내외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기능과 친화)가 개인의 판단준거가 되는 조망확대가 일어난다(이해경과 이수원, 1994). 조망확대상태에서는 서술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망확대여부에 따라 인상통합양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이수원과 이지연(1996)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들은 학생시위에 대한 찬성과 반대 태도에서 오는 가치, 즉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모두 갖는 조망확대집단과 둘다 갖지 않는 무조망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상통합양식의 차이를 검증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서 조망확대집단은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할 수 있는 반면에 무조망집단은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할 수 없었다. 무조망집단과 조망확대집단의 인상통합양식의 차이를 볼 때 결국 서술적 의미의 지각은 조망확대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서술적 의미의 지각이 발달의 결과임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이수원과 신현숙, 1986; 이지연, 이해경 및 이수원, 1997). 이수원과 신현숙(1986)은 Shepp와 Swartz(1976)의 지각차원의 분화연구에서 사용한 분류과제를 도입하여 성격특성의 의미지각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Shepp와 Swartz(1976)는 사물을 지각할 때 어린 아동은 사물의 물리적 차원 예컨대, 색상차원과 형태차원을 분화해서 지각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인은 이들을 분화해서 지각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성인은 사물을 차원구조(dimensional structure)로 지각하는 반면에 아동은 유사성 구조(similarity structure)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수원과 신현숙은 이런 현상이 성격특성의 의미지각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예상대로 아동은 성격특성의 의미지각에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인은 이를 분화하여 지각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수원과 신현숙은 아동에게 일련의 성격특성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서술적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였을 때 성격특성의 평가적 의미에 의해서 간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특성들의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분화해서 지각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성인은 서술적 의미에 따라서 분류시켰을 때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아동이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섭받는 것을 태도의 차원구조에 있어서 평가차원과 서술차원이 분화된 구조를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들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조망확대집단에 비해 무조망집단에서 나타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해 간섭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수원과 신현숙(1986), 이지연, 이해경 및 이수원(1997)의 연구에서 성인이 아동에 비해 인상통합양식에서 두 차원을 분화하여 지각할 수 있는 것은 평가차원과 서술차원의 분화된 태도구조를 갖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해석은 한편으로 조망확대와 축소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인이 평가차원과 서술차원이 분화된 태도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조망확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아동이 태도구조가 분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조망 혹은 조망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인이 아동에 비해 조망확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술적 의미를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상통합에서 의미지각의 발달은 먼저 평가적 의미가 지각되고 이어서 서술적 의미가 지각된다고 볼 때(이수원과 신현숙, 1986), 이 연구에서 사용한 범주화 처치는 조망축소가 일어나 결국 발달적으로 아동의 수준에서 인상을 통합하게 하므로 서술적 의미는 지각하지 못하고 단지 평가적 의미에 따라서만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탈범주화처치는 조망확대가 일어나 결국 발달적으로 성인의 수준에서 인상을 통합하게 하므로 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분화하여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범주화에서 나타나는 효과 즉, 평가적 판단을 약화시키는 전략들이 검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내외집단성원들이 상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여 범주경계를 재설정하는 재범주화 전략이나 집단성원들을 개별화하여 범주경계를 해체하는 탈범주화 전략(Gaertner et al, 1989), 외집단을 개별화시키는 전략(Wilder, 1978), 새로운 하위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교차적 범주멤버십을 갖도록 하는 전략(Brewer, Lee, & Miller, 1987) 등이 그것이다. 이런 연구들에서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내외집단성원들에 대한 태도변화 정도를 평가차원(좋다(good)-나쁘다(bad), 좋아다(like)-싫다(dislike) 차원)에서만 측정하고 있다. 평가차원에서 인상을 평정하게 되면 평가적 의미지각의 효과만을 측정하게 된다. 내외집단성원들에 대한 태도를 감정, 인지,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해 본다면(Worchel, Cooper, &

Goethals, 1990), 평가차원에서 인상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태도변화에서 감정적 측면(평가적 측면)만을 측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들 연구들에서 인지적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차원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 결단력이 있다-결단력이 없다, 따뜻하다-차갑다). 인지적 변화를 평가차원에서 측정한다는 것은 인지적 변화의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범주화 전략이 평가차원에서 평가적 의미지각에 주는 효과 뿐만 아니라 비평가차원 즉, 서술차원에서 서술적 의미지각에 주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검증한 가설들은 그 적용 영역에 한계가 있다. 즉 범주화가 강조되면 내집단이 추구하는 준거가치가 개인의 판단준거가 되기 때문에 평가적 판단이 일어나게 된다고 가설화하였다. 그러나 평가적 판단의 효과는 실제 최소집단패러다임(Tajfel, 1970)과 같은 실험상황에서도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소집단패러다임과 같은 상황에서는 집단의 구분기준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가설이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가설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태준·이수원(1994). 감정적 처리에서 인지적 처리로: 내외집단 성원의 재범주화와 탈범주화의 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교육논총*, 제7권, 43-72.

이수원(1994). 사회적 자아중심성: 타인이해에서 성향주의의 원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13권 1호, 1-38.

이수원·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4권 1호, 155-181.

이수원·신현숙(1988). 태도의 차원구조: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6권 3호, 181-192.

이수원·이지연(1996). 정적과 부정 감정이 부재하는 중립태도와 공존하는 중립태도에서 인상형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10권 2호, 49-67.

이지연·이해경·이수원(1997). 대인지각에서 정보통합양식의 발달: 평가적 통합에서 서술적 통합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0권 2호, 98-122.

이해경·이수원(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선호, 및 내집단 편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8권 2호, 108-123.

이해경·이수원(1996). 성고정관념의 감소: 재,탈범주화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권 1호, 43-62.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상적 시각. *한국 여성학*, 3권, 132-160.

Abrams, D., & Hogg, M. A.(1988). Comments on the motivational status of self-esteem in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317-338.

Brewer, M. B.(1979). In group bias in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Brewer, M. B., Lee, J., & Miller, M.(1987). Social identity and social distance among Hong Kong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 156-165.

Brown, J. D. Collins, R. L. & Schmidt, G. W.(1988). Self-esteem and direct vs. indirect forms of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45-453.

Crocker, J., & Luhtanen, R.(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8.

Gaertner, S. L., &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1989).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Peabody, D. (1967). Trait inference: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y, 7, (Whole No. 644).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2.

Tajfel, H.(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0.

Tajfel, H., & Turner, J. C.(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ur. In S. Worchel & W. 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Wilder, D. A.(1978). Reduction of Intergroup discrimi-

nation through individuation of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61-1374.

Wilder, D. A.(1986). Social categorization: Implication for creation and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In L. Berkowitz.(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129-151). Hillsdale, NJ: Erlbaum.

Worchel, S., Cooper, J., & Goethals. J. R.(1990). Prejudice and Stereotyping, In *Understanding social psychology*, Ch6(pp.360-361), Brooks/Colos.

The Effect of Social Categorization on Impression Integration

Hae-Gyoung Lee and Soo-W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categorization on impression integration. It is hypothesized that individuals which are identified with ingroup occur perspective reduction because individuals judge given informations with one criteria of the ingroup values, so they can't perceive differently the descriptive meaning and the evaluative meaning. On the other hand, it is hypothesized that individuals which are identified with each individual occur perspective extension because individuals judge given informations with two or multi criteria of in-outgroup values, so they can perceive differently the descriptive meaning and the evaluative meaning. To test this hypothesis,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categorization and decategorization condition. Subjects in categorization condition were manipulated to identify themselves with gender role by making gender category be salient. In contrast, subjects in decategorization condition were manipulated to identify themselves with each individual by eliminating the boundary of male and female categories. Subjects was given congruent information and incongruent information in evaluative meaning and descriptive meaning of personality traits, respectively, and then subjects judged impression in evaluative dimension and descriptive dimension, respectively. In results, First, according to congruent information analysis, subjects in categorization condition can not perceive differently the evaluative meaning and the descriptive meaning in impression integration. That is, the subjects integrated impression based on evaluative meaning when rating dimension was both evaluative dimension and descriptive dimension. In contrast, subjects in decategorization condition can perceived differently the descriptive meaning and the evaluative meaning in impression integration. That is, the subjects integrated impression based on evaluative meaning when rating dimension was evaluative dimension, and based on descriptive meaning when rating dimension was descriptive dimension. Second, according to incongruent information analysis, subjects in categorization condition integrated impression based on evaluative meaning when personality traits consisted of congruent traits in the evaluative meaning and incongruent traits in the descriptive meaning. In contrast, subjects in decategorization condition integrated impression based on descriptive meaning when personality traits consisted of congruent traits in the descriptive meaning and incongruent traits in the evaluative meaning. Therefore the hypotheses in this study were confirmed by the given experimental data.